



“내가 이겼다” 광주 FC의 박희성(왼쪽)이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2012 포항 스틸러스와의 홈 개막전에서 김진용과 공중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은선 30초만에 ‘벼락골’

광주 FC 홈 개막전, 강호 포항과 1-1 비겨 ... 승점 4 초반 돌풍



광주 FC가 홈팬들 앞에서 귀중한 승점 1 점을 추가했다. 광주 FC가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2012 K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1-1로 비기면서 승점 1점을 보태 총 승점(1승1무)이 4점이 됐다. 홈 개막전을 기념하는 축포와 함께 광주의 득점포가 터졌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지마자 광주의 공격이 시작됐다. 중앙으로 치고 오른던 이승기가 앞서 달려 김은선에게 공을 밀어주었다. 김은선은 페널티에어리어 왼쪽에 있던 박이에게 공을 찰러주면서 공격을 이었고, 패스를 받은 박이는 왼발로 슈팅을 날렸다. 하지만 공이 골키퍼 신화용을 맞고 다시 김은선 앞으로 향했다. 중앙에 있던 김은선은 침착하게 오른발로

공을 밀어넣으면서 첫 골을 만들었다. 첫 골이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30초에 불과했다. 일격을 당한 포항이 든든한 허리라인을 중심으로 공격을 압박했다. 전반 24분 프리킥 찬스에서 포항 황진성이 찬 공이 골문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골키퍼 박호진이 뛰어들면서 간신히 막아냈다. 그러나 전반 34분 문전경합 상황에서 포항 지쿠의 헤딩골이 나오면서 승부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반 광주의 2012시즌 비장의 무기인 ‘복주수 트리오’카드가 첫 가등에 들어갔다. 최만희 감독이 후반 10분과 31분 안성남과 김동섭을 대신해 각각 중앙파울러로 새 외국인 공격수 슈바를 투입하면서 세 외국이 공격수가 나란히 공격라인에 섰다. 중앙파울러의 스피드와 슈바의 파워로 분위기가 반전에 성공한 광주는 포항의 골문을 열기 위해 공세를 펼쳤다. 후반 33분 중앙파울러를 시작으로 해서

복주수 라인의 첫 공격이 이뤄졌다. 스피드로 공을 점령한 중앙파울러가 페널티에어리어 왼쪽에 있던 박이에게 공을 넘겨줬다. 박이는 반대쪽에 있던 슈바에게 패스를 하면서 슈팅 기회를 만들었다. 공이 빗나가면서 득점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광주의 복주수 라인의 위력이 발휘된 순간이었다. 양팀은 후반들어 적진을 넘나들며 빠른 공격을 전개했지만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광주는 30초 만에 얻은 선제골을 지키지 못했지만 귀중한 승점 1점을 보냈다. 프로 데뷔골을 기록한 주장 김은선은 “홈 개막전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하자고 선수들과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골로 연결됐다”며 “데뷔골이라서 어리둥절하고 실감도 안나고 했지만 동료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실감도 나고 기분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쉽다 ... 팬들에 감사”

최만희 광주 FC 감독 인터뷰

“널지 않으려고 했는데...” 11일 포항과의 경기가 끝난 후 광주 최만희 감독이 슈바의 투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후반 31분 최 감독은 공격수 김동섭을 빼고 슈바를 그라운드에 올리면서 처음으로 복주수 라인을 가동했다. 슈바를 투입해 공격에 힘을 더하기는 했지만 최 감독의 구상에는 없던 모습이었다. 최 감독은 “오늘 김동섭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슈바가 전지훈련 앞두고 3달간 운동을 하지 못했다. 오늘 경기에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슈바가 앞에서 옷을 벗었다 입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을 넣어주라는 사인을 자주 보내더라”면서 웃었다. 슈바는 전지훈련 기간동안 코칭스태프가 오히려 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시즌을 준비했다. 친정 포항을 상대로 한 홈개막전 출전 의지를 강하게 보였던 슈바는 결국 ‘열정’으로 최 감독의 마음을 열었다. 최 감독은 “김동섭이 좋아서 그대로 두고 슈바까지 4명의 공격수로 갈까도 생각했지만 포항의 공격을 생각해서 안정적인 전략을 선택했다”며 “슈바의 강한 의지력이 좋다. 골 찬스를 놓치고 동료들에게 미안해 하기도 하는 등 팀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감독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지만 아쉬움은 있지만 선수들이 추운 날씨에도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 앞에서 지지 않은 경기를 보여준 것에 고맙다”면서 “세트플레이 상황이 많이 준비했는데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쉽다. 하지만 지지 않고 승점 4점을 땀으로써 만족스럽다. 다음 주 제주와 홈경기가 있는데 처음처럼 준비 잘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홈개막전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란·우즈벡 넘어야 브라질 간다

월드컵 최종예선 A조 전력과 최강희호 전망

최강희호가 최종예선에서 일본 대신 이란과 운명을 건 승부를 하게 됐다. 한국 축구는 지난 9일 아시아축구연맹(AFC) 하우스가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조 추첨에서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타르, 레바논과 A조에 포함됐다. 최강희 감독이 맞대결을 원했던 일본은 호주, 이라크, 요르단, 오만과 함께 B조에 배정됐다. 최강희호는 첫 경기는 오는 6월 8일 카타르 원정이다. 총 4.5점의 월드컵 본선 진출권이 배정된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각 조 2위까지 본선에 직행

한다. 각 조 3위 팀은 맞대결을 벌여 승자가 남미 예선 5위 팀과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티켓 한 장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역대 전적 호각지세 숙명의 라이벌 이란=한국은 이란과 역대 전적에서 9승7무9패로 팽팽하다. 하지만 이란은 알리 카리미, 마다비키아 등 과거 공격진의 주축 선수들이 은퇴한 후 세대교체 실패했다. 지난해는 아시안컵 8강에서도 한국과 만나 0-1로 패했다. 특히 10만 관중이 몰입하는 이란 홈구장은 해발 1270m에 육박하는 고지대로 원정 팀에 악명이 높다. A조에서 한국과 조 1위를 다투게 될 강력한 경쟁자이다. ▲K리그 출신 많은 우즈베키스탄=한국

한국팀 경기일정

1차전(원정)	2012.6.8	대 카타르전
2차전(홈)	6.12	대 레바논전
3차전(원정)	9.11	대 우즈베키전
4차전(원정)	10.16	대 이란전
5차전(홈)	2013.3.26	대 카타르전
6차전(원정)	6.4	대 레바논전
7차전(홈)	6.11	대 우즈베키전
8차전(홈)	6.18	대 이란전

은 우즈베키스탄과 역대 전적에서 7승1무1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 1992년 히로시마 아시아경기대회 8강에서 0-1로 패한 것 외에 주요 대회에서 ‘우즈베키

월드컵 최종예선 한국 상대국 * 한국은 FIFA랭킹 30위·월드컵 출전 8회

이란 IRN	우즈베키스탄 UZB	카타르 QAT	레바논 LIB
1 164만8천명 / 6,588만명(08) / 12,300달러(07)	1 44만7천명 / 2천830만명(08) / 1,380달러(10)	1 1만1천명 / 91만명(07) / 84,000달러(11)	1 1만452명 / 402만명(10) / 10,041달러(10)
2 3회, 14회(1976년)	2 본선 진출 없음	2 본선 진출 없음	2 본선 진출 없음
3 51위	3 67위	3 88위	3 124위
4 3승3무(조1위)	4 5승1무(조1위)	4 2승4무(조2위)	4 3승1무2패(조2위)
5 25전 9승7무9패	5 9전 7승1무1패	5 5전 2승2무1패	5 8전 6승1무1패
6 카를로스 퀴에로스 / 자비드 네쿠남, 자비리 등	6 바딤 아브라모프 / 제마로프, 게인리호 등	6 파울루 아우무우호 / 하이도스, 세바스티안 소리아 등	6 예말 라스툼 / 로다 안타르, 유세프 모하메드 등
4-5-1	4-4-1-1	4-4-2	4-3-3

① 국가면적 / 인구 / 1인당 GDP ② 역대 월드컵 본선진출 횟수 및 최대 성적 ③ FIFA랭킹(3월9일 현재) ④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성적 ⑤ 한국 기준 역대 상대국 전적(A매치) ⑥ 감독 / 주축할 선수 ⑦ 연방뉴스

키스탄 킬러’로 위용을 떨쳤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주축인 제파로프, 게인리호, 카파제 등은 K리그에서 맹활약한 선수들이다. 이외의 ‘북병’일 수 있다. ▲중동의 다크호스 카타르=한국은 카타르와 역대 전적에서 2승2무1패로 앞선다. 그러나 카타르는 3차 예선에서 2승4무(승점

10) 무패를 기록하며 최종 예선에 진출했다. 특히 2022년 월드컵 개최에 성공한 카타르는 오일머니를 앞세워 최근 아시아 축구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로 눈길을 끌고 있다. 2006년 도하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과 지난해 아시안컵 8강 등 아시아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약체 그러나 깔리러온 레바논=한국은 레바논과 역대 전적에서 6승1무1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에 패배의 쓰라린 상처를 준 팀이기도 하다. 3차 예선에서 같은 조에 속했던 레바논은 한국 원정에서 0-6으로 패하고도 홈에서 2-1로 신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